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상황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소매 판매 3개월 연속 상승
- WSJ: 뉴욕 제조 활동 6월 이래 처음으로 감소
- YahooFinance: 8월 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가격 상승
- WSJ: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의 연준 이사 Cook 해임 시도에 제동
- WSJ: 연방상원, 연준 이사 후보 Miran 승인
- Bloomberg: 상위 10% 부유층의 소비 지출 점유율 늘어

[주택]

- Reuters: 높은 금리로 수요 억제...미 주택 시장 침체 지속될 듯

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상승 예상...러시아산 원유 공급 압박 커져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신발 회사들, 가격 인상 경고...관세 여파로
- CNBC: 식품 판매 편의점이 패스트푸드점 잠식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Retail Sales Beat Forecasts in Sign of Solid Summer Spending

미 소매 판매 3개월 연속 상승

-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미 소매 판매액 총규모가 7월과 비슷하게 8월에도 0.6% 상승했다.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수치다. 자동차를 제외하면 0.7% 상승했다.
- 13개 카테고리 중에 9개가 상승했는데 이중 온라인 소매, 의류, 스포츠용품 등 백화점 관련 용품들이 상승을 주도했다.
- 이는 일부 품목들의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과 노동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.
- 또한 임금 인상이 둔화한다 해다 많은 근로자의 상승세가 인플레를 앞서고 있고, 특히 부유층의 경우 주식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.



Bloomberg 기사

WSJ: New York Manufacturing Declines for First Time Since June

뉴욕 제조 활동 6월 이래 처음으로 감소

- 9월 뉴욕 제조 활동이 감소했다. 제조 지수가 8.7 줄어들어 20.6을 기록했다.
- 신규 주문과 출하도 크게 감소했으며 공급 상황도 악화됐다. 고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.

- 투입 비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하였다. 전망에 대한 낙관주의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수준은 향후 6개월간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.

WSJ 기사

YahooFinance: US import prices increase in August on capital, consumer goods

8월 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가격 상승

- 8월 미 수입 가격이 예상외로 상승했다. 주로 자본재와 소비재 비용 상승이 이를 주도했다. 이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미 인플레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오늘 화요일 연방 통계국에 따르면 수입 가격이 7월에 0.2% 하향 조정된 후 8월에는 0.3% 상승했다.
- 수입 가격에는 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상승 수치는 수출 국가들이 트럼프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. 즉,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부담하고 있다.

YahooFinance 기사

WSJ: Appeals Court Rejects Trump Request to Remove Fed Governor Lisa Cook

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의 연준 이사 Cook 해임 시도에 제동

-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Cook의 해임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했다.
- 하급심 법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는데 Cook이 트럼프의 해고 시도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 그의 해임 시도에 거부 판결을 내렸다.
- 이에 대해 행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WSJ: Senate Votes to Confirm Trump Pick Stephen Miran to Fed Board

연방상원, 연준 이사 후보 Miran 승인

-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연준 이사 후보자 Stephen Miran의 이사직을 승인했다.
- 그는 갑자기 연준 이사직을 사임한 Adriana Kugler의 후임으로 결정된 것이다.
- Miran 이사는 현재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급 휴직을 하면서 연준 이사를 맡게 된다.
- 그는 이번주 연준 정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.
- 일부 관계자들은 그가 두가지 업무를 겸하게 되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Top 10% of Earners Drive a Growing Share of US Consumer Spending

상위 10% 부유층의 소비 지출 점유율 늘어

- 부유층의 미 소비지출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. 상위 10%가 올해 2분기 지출의 49.2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고용 둔화와 채무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 경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의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이다.
-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경제가 부유층 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확장을 불안한 상태로 만들수 있으며 주식 시장이 둔화할 경우 이같은 불안한 상황이 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

Reuters: US housing market to remain stuck in a rut as high rates choke demand: Reuters poll
높은 금리로 수요 억제...미 주택 시장 침체 지속될 듯

- 미국의 침체된 주택 시장이 높은 모기지율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어 내년까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2027년부터 완만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재고 부족이 완화되고, 10년간 매물 등록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, 6.5% 약세로 맴도는 모기지율로 인해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.
-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내년에 평균 6.37%, 2027년에는 6.2%로 예상되는데, 이는 지난 10년동안 유지한 평균 4%보다 훨씬 높다.
- 기존 주택 매매는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 연간 400만 채에 머물다 2026년 초에는 약 410만 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, 이는 2021년 팬데믹 시기의 최고치인 660만 채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.

Reuters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Rises as Traders Weigh Mounting Pressure on Russian Supplies
유가 상승 예상...러시아산 원유 공급 압박 커져

-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대해 압박이 커지고 중동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.
-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최대 1.6% 상승해 배럴당 64달러를 돌파했고, 우크라이나는 어젯밤 러시아 정유 공장을 또 공격한 상황이다.
- 이번 주에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유가 및 유가 관련 상품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, 이는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를 자극하고 에너지 수요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.
- 이에도 불구하고, 일부 원유 시장 지표는 약세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Shoe Companies Warn of Price Increases as Tariff Costs Kick in
신발 회사들, 가격 인상 경고...관세 여파로

- 신발 회사들이 관세 인상 전 비축해둔 재고를 소진함에 따라 신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.
- 노동부에 따르면, 신발 가격은 연간 1.4% 상승했고, 여성 신발 가격은 2.8% 상승했다. 패션 트렌드를 기반으로 여성용 제품을 앞당겨 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.
- 이는 소비자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, 기업들은 관세비용을 서서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한 것이다.
- 신발 업계 임원은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은 15~20% 상승했으며, 도매 가격은 5~10% 상승했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CNBC: Convenience stores are eating fast-food chains' breakfast
식품 판매 편의점이 패스트푸드점 잠식

-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이 패스트 푸드점의 아침 고객을 뺏어가고 있다.
- 지난 7월까지 3개월간에 패스트푸드 아침 식사 판매 서비스는 1% 상승에 그친 반면에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의 경우 9% 상승했다고 관련 기관 Cicana는 밝혔다.
- 현재 편의점들의 가솔린, 담배, 로또 판매는 줄어드는 데 비해 즉석식품 판매가 이들 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.

CNBC 기사

뉴욕증시, 미중협상 진전에 강세...S&P500·나스닥 최고치

구글 알파벳 '시총 3조달러 클럽' 가세...시장, 17일 연준 금리인하 기대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"매우 잘 됐다"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5일(현지시간)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.23포인트(0.11%) 오른 45,883.45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.99포인트(0.47%) 오른 6,615.28에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7.65포인트(0.94%) 오른 22,348.75에 각각 마감했다.

S&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.

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뉴욕증시, 미중협상 진전에 강세...S&P500·나스닥 최고치(종합) - 2

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4~15일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"매우 잘 됐다"면서 "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'특정' 기업(틱톡)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"고 밝혔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협상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도 이날 회견에서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·무역 문제에 대해 "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"면서 "협력을 통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"고 밝혔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